

도서관 성장동력으로서 직업윤리



홍기철*

일반적으로 윤리는 도덕적이고 도덕은 윤리의 실천이라고 한다. 윤리는 개인행동에 대한 준칙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윤리는 인간의 무의식적 행동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고와 선택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사회윤리는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개인의 행동규범을 규정하는 것이다. 사회내 존재하는 직업에 대한 윤리는 직업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사회와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직업이라는 상호관계로 가지게 된다. 사회는 직업에 임무를 부여하면서 직업마다 고유한 윤리적 규범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직업인은 직업의 윤리적 규범을 준수하면서 부여받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직업윤리체계는 사회윤리체계의 하부구조를 형성하므로 직업윤리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사회는 그 직업체계 자체를 부정할 수도 있다.

도서관은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배포하는 사회적 임무를 부여 받은 기관이며 도서관인은 도서관이 사회적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인이다. 그러므로 도서관인의 윤리는 직업인으로서 도서관인들의 행동에 대한 도덕기준으로서 규칙을 말한다. 도서관인의 윤리는 도서관이란 조직의 활동에 적용되는 행위에 대한 규칙들로 구성된 도덕체계를 말하며 도덕체계는 일련의 상호의무로 인간의 행동은 이런 도덕적 체계하에서만 가치를 가진다. 그러므로 도서관에서 도서관인의 행동은 사회가 부여한 윤리규범을 준수해야만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도서관인 업무에 가장 빈번하게 부딪치는 주요한 윤리문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 대표적이라 할 것이다.

첫째, 지적자유에 대한 검열의 문제로 도서관 자료의 장서선정과 폐기에서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윤리적 문제이다. 지적 자유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도서관 외부에서 검열을 시도하는 주요원인은 정권적 차원과 종교적 차원이 대다수를 이루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도서관에서 가장 적극적인 검열가는 도서관인 자신들이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서들은 논쟁의 소지가 있는 자료를 아예 도서관에 소장하지 않음으로서 논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에 서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도서관인들은 자료소장여부는 기준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검열가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실제로 자신의 주관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검열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서관인은 검열가의 역할을 하면서도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둘째, 참고봉사에서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윤리문제는 이용자 개인에 대한 비밀보장과 정보의 사용목적에 대한 중립성 여부의 문제이다.

* 우리 협회 윤리위원회 위원장, 국회도서관 참고봉사국장, hkc@nanet.go.kr

이용자의 비밀보호는 주로 도서관기록에서 발생하며 이용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기록은 물론이고 도서관 정보의 이용기록도 보호의 대상이다. 미국도서관협회는 도서관기록의 비밀보장정책을 채택하고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도서관인 윤리선언에서 실천강목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선언하고 있으나 개별도서관에서는 아직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

참고봉사에서 개인의 정보보호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보의 사용목적에 대한 것이다. 도서관 입장에서 정보이용의 목적을 판단할 수 없는 반면에 사회전체의 입장에서 반사회적 행동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도서관이 제공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또한 참고봉사에서 법률적 문제나 의학적 문제와 같은 다른 전문가의 영역에 대하여는 정보안내의 역할에 그쳐야 한다. 다른 전문가의 영역에 대한 정보를 분석이나 해석하여 제공하는 것은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불법행위로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셋째, 정보접근의 문제로 이는 정보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문제이다. 정보의 불평등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다.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수준으로 인하여 도서관에서 차별을 받는 것은 지식격차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오늘날같이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도서관자체의 소장 자료에 대한 정보접근권의 문제보다는 외부정보에 대한 정보접근의 문제에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 정보접근의 문제는 도서관은 이용자의 정보사용목적에 개입할 수 없다는 중립성과 사회전체에 피해를 가져오는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되는 가치성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전통적으로 도서관에서 부딪쳐온 자료의 가치와 이용자의 요구중에서 어느 것을 우선해야 문제와 그 맥을 같이한다.

랑가나단이 설파했듯이 도서관은 성장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도서관이 성장하려면 도서관도 자체적으로 성장할 동력을 갖추어야만 한다. 도서관의 성장동력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도서관이 아니라 이용자가 열쇠를 쥐고 있다. 즉 이용자가 도서관이 자신의 삶에 꼭 필요한 존재로 인식을 하는 것이다. 도서관은 이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면 된다. 이용자의 신뢰가 있다면 도서관은 이를 성장 동력으로 삼아 무한히 성장할 수가 있지만 반대로 이용자의 신뢰를 잃어버린다면 도서관은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쇠퇴하게 될 것이다.

이용자들이 도서관에 요구하는 수준이 과거와 달리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며 도서관은 이런 요구에 적합하게 대응하지 하지 못하면 이용자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용자가 도서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사회가 도서관에 부여한 윤리규범과 직업적 임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도서관인으로서 우리의 직업윤리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한다. 도서관은 권력기관도 아니고 이익추구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직업적인 윤리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직업윤리는 단순히 권력남용이나 부패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가장 근본적인 직업윤리문제는 사회의 직업도덕체계가 부여하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느냐 수행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다.

직업윤리는 사회의 직업도덕체계가 부여하는 의무를 따라야 하는 것이며 도서관인 직업윤리의 토대는 이용자의 신뢰이다. 이용자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일에 대하여 예산의 부족, 인력의 부족, 시설의 낙후에 있지 도서관 사람들의 책임은 아니라는 행태는 도서관이 미래에 존속할 것인지 자체를 회의적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도서관은 사회 구성원들이 위임한 지식과 정보의 관리와 제공이라는 고유의 책무를 저버릴 수는 없는 일이다. 이를 위하여 도서관의 독자성을 구축하여 이용자에게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며 이 신뢰는 도서관인의 직업윤리로서 미래의 도서관발전을 위한 최고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